

김선민. “‘外國’과 ‘屬國’의 사이: 正史를 통해 본 청의 조선 인식”

- 내외구분의 역사적 변화 탐구. 본질주의적 관점의 탈피를 모색. 屬, 外, 藩의 개념의 역사적 변화 추적.

<기존 번속관계 연구>

- 王柯- 五服制, 내복과 외복의 제도적 구분. 진대 屬邦, 臣邦 개념의 등장. 진의 법체계의 영향을 받지만 지리적 문화적으로 구분된 대상. 간접통치의 영역.
  - 張雙智 - ‘外藩’개념. 1) 외부에 분봉된 종실, 2) 경사 외부의 州郡이나 重鎮, 혹은 3) 복속한 변경지역의 민족이나 외국을 가리킨다. “內屬外藩”과 “境外外藩”으로 나누는데, 내속 외번은 이번원에 예속된 몽고 각부, 티베트, 청해 등을, 경외외번은 주객사에 속한 동남쪽의 여러 국가 조선, 류큐, 南掌(라오스), 緬甸(미얀마), 蘇祿(술루 군도), 暹羅(태국). 국왕의 내조를 기준으로 내속과 경외를 나눔.
  - 張永江 - 청대 번부와 속국에 주목. 공통점은 황제와의 종속관계 차이점은 번부는 국내의 집단. 속국은 국외의 집단과 국왕을 매개로 관계함.
  - 黃松筠 - 청대 번부와 속국의 공통점 강조. 藩屬으로 통칭. 주대 제후국의 완성된 형태.
  - 김한규 - 중국개념의 역사적 변이 강조.
- => 한정된 시기의 역사적 맥락과 인식 연구의 필요성. 일반화는 보류.

<청대 조선관의 변화: 명사와 청사고의 조선전 활용>

- 청조 외국개념에서 청말 근대적 속국개념으로 조선을 대하는 중국인의 인식변화를 명사와 청사고 비교를 통해서 추적.
- 명사와 청사고에 사용된 속국과 외국개념은 자주 혼동됨. 편찬시기의 맥락에 따라 용어 뒤의 개념적 차이를 드러내야 함.
- 명사열전의 마지막 세 권이 土司傳, 外國傳, 西域傳. 외국전 처음이 조선열전.
- 청사고는 邦交志, 藩部, 屬國 전이 있는데, 방교지에는 서양국가들, 번우전에는 몽고, 신강, 티베트 등지의 부족과 국가, 조선은 속국열전의 처음, 류큐, 월남 등도 속국열전에 속함.

<명사와 청의 내외인식>

▷ 역사적인 배경

- 옹정제의 화이관- 지리 종종적 기준에서 문화와 윤리적 기준의 화이론으로 변환.
- 오카모토 다카시 - 『대의각미록』 명보다 엄격한 종속관계. 황제즉위를 추대했다면 속국이 아닌 번부가 되었을 것.
- 구범진 - 예치가 아닌 무력정복. 이후에도 강한 군사적 정치적 견제

▷ 청대 조선관- 충성스런 外國

- “조선은 명에 대해 비록 속국이라 칭해졌으나(명의) 내지와 다르지 않았다” 유사시에는 보호하여 종사를 지키게 하고 평상시에는 내지와 같이 여긴다는 방침 => 안보를 보장하며 평상시에는 사대의 예를 지키는 이상 예치로 관리.

?? 그렇다면 구범진이나 다른 신청사와 달리 청-조선관계가 명-조선 관계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인가?

<청말 조선관- 비공식적 제국의 屬國>

- 서문: 기미책(내정불간섭), 지정학적 안보관 강조.
- 내정 및 외교 간섭의 증대. 커크 라센(Kirk Larsen)의 비공식적 제국으로 청말 속국을 이해.
- 속방(속국)자주의 위기. 속방자주에 대한 조선-청의 인식에 괴리 발생. 다양한 대안의 모색: 속방 명분의 고수. 청의 행성으로 전환. 보호국화.

<결론>

- 중국의 권위와 한반도의 자주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유의미한 지적. 사대는 자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며 이념. 위계가 강화될수록 정치적 자주는 증가함.
- “내정은 자주이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은 청제국의 권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중앙의 권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변의 “자주”와 “속국”은 더 이상 양립하지 않았다

<문제들>

- 정말 명대와 청대 동안 外國=屬國이었을지? 屬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속한다는 것임. 안과 밖의 기준이 하나가 여럿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 변부와 속국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 이번원에서 관리한 변부들은 내지였나 외지였나? 청황실과 변부의 관계는 조선보다 밀접했나? 여기서도 그 나름의 예치가 작동하고 있었나?(크로슬리는 청의 대외관리를 폭력/규범의 상대적 유무보다는 다양한 정당성 확보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옹정과 건륭의 차이. 무엇이 청조의 대세였나? 옹정의 논리가 sinicization에 가깝다면 건륭의 방식은 신청사의 입장에 훨씬 가까움.
- 청말 속국과 18세기 외국의 차이를 저자는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을 피하고 있음. 청말 속국의 의미는 근대적이기보다는 일종의 이행기의 개념이 아닌지. 비공식적 제국개념으로 충분한가?
- 방법론적으로 명사와 청사고가 사상적 변화를 추적하는데 쓰기 어려운 텍스트. 명사의 명대의 인식을 담고 있는지 작성된 청대의 인식을 담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움. 텍스트의 역사적 지층을 구분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으나 결국 명청시기의 조선관이 비슷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음